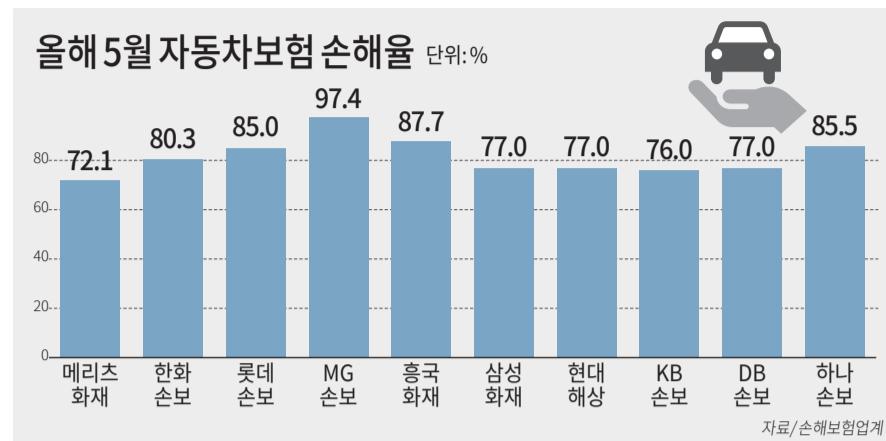


# 車보험 손해율 '뚝'… 손해율 높아지는 여름 앞두고 '긴장'

지난 5월 손보 車보험 손해율 82% 메리츠화재 손해율 72%로 가장 낮아 휴가철, 이동 늘며 손해율 증가할 듯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고심이 줄어 들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5%로 전월 대비 1.8%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활동이 줄어 들며 자동차 이용률과 더불어 감소해 왔다. 올해에도 ▲1월 87.7% ▲2월



84.7% ▲3월 77.5% ▲4월 83.3%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회사별로는 메리츠화재의 올 5월 손해율이 72.1%로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의 손해율은 77.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MG손보의 손해율은 97.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와 롯데손보의 손해율도 각각 87.7%, 85.0%에 달했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

지출을 고려해 78~80% 정도를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좀처럼 안정권을 뛰어넘는 수치로 손보사들의 온라인 골칫거리로 여겨왔다. 따라서 손보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는 여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름은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으로 손해율이 높은 시기로 꼽힌다. 더불어 여름 휴가철이 오면 차량 이동도 늘어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 야외활동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에서 안정권을 기록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올해 긍정적인 손해율을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긍정적이었다. 5월까지 지속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권에 들어서며 올해 손해율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백신 접종자가 많고, 30대 남성들의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자동차 이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 곧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면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악화도 우려가 된다. 침수피해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6월의 손해율도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반기 내내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했던 만큼 올해 손해율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우리금융, 서울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지원

ESG·도시문제 해결 특화 기업

우리금융지주는 서울산업진흥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도시문제 해결에 특화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SG 및 도시문제 해결 특화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무공간,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스타트

업의 성장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을 그룹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통합센터를 마련했다.

더불어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 기관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 시너지를 강화 할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ysl@

## DB손보, 모바일 기반 소셜 매거진 개편

스마트폰서 보기 편한 디자인

DB손해보험이 모바일 매거진을 통해 고객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DB손보는 인쇄매체 고객 소식지 '프로미라이프'를 모바일 기반의 소셜 매거진으로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소셜 매거진 프로미라이프'는 매월 새롭게 발행한다. 카카오톡에서 DB손보와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DB손보의 가족사랑 사이트 등 SNS채널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독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및 건강 정보 등을 선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일부 컬럼은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고객들이 정보를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 매거진 프로미라이프'는 매월 새롭게 발행한다. 카카오톡에서 DB손보와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DB손보의 가족사랑 사이트 등 SNS채널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이영석 기자

## NH농협금융, 한국판 뉴딜 투자 박차

범농협 계열사 공동 투자  
그린에너지 분야 등 중점

NH농협금융지주는 범농협 계열사가 공동 투자해 그린에너지 분야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농업 관련 뉴딜 인프라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그린뉴딜 인프라 ESG 펀드를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NH-아문디(Amundi) 그린뉴딜 인프라 ESG 펀드'는 1500억원 규모로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수소, 연료전지 등에 대한 신규투자와 동시에 기존 신재생에너지 원인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를 병행함으로서 최적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 NH농협손보,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등 범농협 계열사가 투자자로 참여

하고, 운용은 NH-아문디자산운용이 맡는다.

이에 앞서 농협금융은 ESG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그린스마트스쿨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움그린뉴딜인프라펀드'에 농협은행과 농협생명이 공동으로 1500억원 규모로 참여한 바 있다.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은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에 발맞추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협금융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금융 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ESG 경영 체계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안상미 기자

## 하나은행

### 6억 규모 ESG채권 발행

하나은행은 6억 달러 규모의 ESG채권(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의 ESG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가 결합한 형태로 지난 2019년 1월 6억 달러 규모의 공모 채권 발행 후, 약 2년 6개월 만에 발행되는 미달러화 공모 채권이다. 발행 채권은 미달러화 선순위 무담보 고정금리 채권으로, 만기는 5.5년이고 발행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금리에 0.55%를 가산한 1.25%이다. 발행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HSBC, MUFG, 스텐다드차타드가 공동주관 하였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로부터 각각 'A1', 'A+' 등급을 부여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ESG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